

“세월호 9주기 아이들 잊지 말아주세요”

가족극단 ‘장기자랑’ 제작이야기

연극 통해 아픔 치유 일상 담아

5·18 희생자 가족에게 선물 전달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 법입니다.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월호 9주기를 앞두고 영화 ‘장기자랑’ 시사회가 지난 2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렸다. 시사회에는 5·18 희생자 가족을 포함해 100여 명의 관객이 좌석을 가득 채웠다.

영화 ‘장기자랑’은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 학생들의 엄마들로 구성된 4·16가족 극단 노란 리본의 세 번째 작품 연극 ‘장기자랑’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았다. 연극 ‘장기자랑’은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선보일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고2학년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극이다. 아이들이 꿈인 반장 ‘조가연’을 필두로 10대들의 고민과 우정을 빌랄하게 그려냈다.

영화의 첫 장면은 극단 ‘노란 리본’의 장기자랑 공연 리허설 장면으로 시작된다. 세월호 이후 1년이 흐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사로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엄마들은 마지막 바리스타 수업이 끝나고 지나가듯 얘기 했던 ‘연극도 재밌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시초가 됐다.

기준 세월호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는 진상 규명과 사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영화 ‘노란 리본’은 2014년 4월에 머무르지 않는다. 연극이라는 매개로 아픔을 다크이는 엄마들의 일상이다.

영화 속에는 일곱 명의 엄마가 등장한다. 유지컬 배우를 꿈꾸던 딸처럼 기가 넘치는 예진 엄마 박유신,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영만 엄마 이미경, 극단을 묵묵히 지키는 수인 엄마 김명임, 필요할 땐 주저하지 않고 쓴소리를 내는 동수 엄마 김도현, 외유내강 애진 엄마 김순덕, 진상규명이 밝혀질 때



영화 장기자랑에 출연한 동수엄마 김도현씨가 영화 시사회를 찾은 이명자 (사)광주인권지원센터 이사장과 5·18 희생자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목공액자를 선물했다.

까지 노란 머리를 유지하는 순범 엄마 최지영, 주인공이 아니어서 오히려 좋다는 윤민 엄마 박혜영 그리고 엄마들의 갈등 해결사 김태현 감독까지.

무대 위에 오른 엄마들은 아이와 같은 단원과 교복을 입고, 자녀의 장래희망을 대신 이야기한다. 아이가 좋아하던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되기고도 하고, 랩을 좋아하던 아이를 대신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그런 엄마들의 모습에선 생전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뭉클하다.

때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자리 를 두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아이의 생일 캐이크에 불을 키고 축하하며 아이들을 함께 그리워한다.

영화가 중반부로 흐르자 함께 관객들은 단원 간 갈등 속 드러난 귀여운 질투심을 보면서 웃음을 터트리다가도 아이를 그리워하는 엄마들의 모습에선 숨죽어 울기도 했다. 92분의 상영 시간이 숨가쁘게 지나가고 영화 크레딧이 오르자 곳곳에서 박수갈채가 터졌다.

추말숙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의 활동가의 사회로 이어진 관객들의 대화에는 영화를 제작한 이소현 감독과 최지영(순범엄마), 김명임 (수인엄마), 김도현(동수 엄마)가 참석했다.

영화 상영이후에는 이명자 (사)광주인권지원센

터 이사장(오월어머니집 전관장)과 5·18 희생자 가족들에게 김도현씨가 직접 만든 목공액자를 선물했다.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이 감독은 “자원봉사로 연극 ‘장기자랑’ 흥보 영상을 촬영 당시 연극 ‘장기자랑’ 오디션 결과 발표에 만족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크게 다투는 바람에 아무것도 죄지 못했다”며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음을 느꼈고, 그간 매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유가족들의 솔직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담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명임씨는 “우리 수인이는 10년 만에 낳은 아이다”며 “9년째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내년이면 10년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 기다린 시간만큼 기다리면 진상규명이 될지 기대도 했다. 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아이를 기웠던 17년의 세월을 보태면 더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인이가 오래 걸려 저한테 온 것 만큼 그동안 저희 아이들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들이 진상구명을 위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 기억해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영화 장기자랑은 4월 5일 개봉한다.
/글·사진=이나라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내달부터 ‘숲 이야기’ 운영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박물관 정원에서 ‘2023년 박물관 숲 이야기’를 운영한다.

박물관 숲 이야기는 박물관 정원을 거닐며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숲의 다양한 가치와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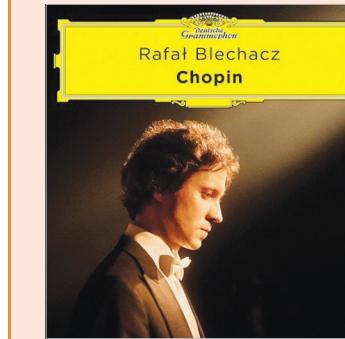
택을 직접 체험·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박물관의 묘(卯)미 ▲풀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선사시대, 도토리의 꿈 등 참여대상별 맞춤형 숲 해설과 오감을 자극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 전시 관람 등의 테마로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협)산림문화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며 매회 90분씩 20명 2팀(총 40명) 내로 운영되며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김성수의 ‘이달의 뜻 클래식’



쇼팽 - 라파우 블레하츠

2005년 쇼팽콩쿠르에서 폴란드인으로는 4번째로 우승을 차지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라파우 블레하츠가 다시 한번 쇼팽 레퍼토리로 돌아왔다. 쇼팽 콩쿠르 이전부터 쇼팽 작품에 깊이 몰두해온 그는 우승 이후에도 쇼팽의 전주곡, 폴로네이즈, 협주곡 등 쇼팽 음반을 발매하며 쇼팽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블레하츠는 이번 신보에 쇼팽의 ‘소나타 2, 3번’ 그리고 ‘녹턴’과 ‘벳노라’를 실었다. 고도의 테크닉, 서정성, 춤의 리듬을 요하는 소나타 2번, 어두운 분위기에서 열광적인 기쁨까지 넓은 감정의 폭을 담아낸 소나타 3번. 여기에 화성적 진행에 따라 2번 소나타 다음 트랙으로 선택한 작품 48-2 F#단조의 ‘녹턴’, 마찬가지로 3번 소나타와 비슷한 정서의 벳노라를 더해 작품과 작품 사이의 유기성을 더했다.



스트라빈스키 - 봄의 제전 & 불새

20대의 나이에 오슬로 필하모닉 수석 지휘자, 파리 오페스트라 음악 감독에 지명되며 폭넓은 레퍼토리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천재 지휘자임을 입증한 클라우스 메켈레가 압도적 매력을 선보인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에 이어서 스트라빈스키로 찾아 왔다. 파리에서 다길레프의 발레리스를 위해 작곡한 발레음악 ‘불새’ (1910), ‘페트루슈카’ (1911), ‘봄의 제전’ (1913)이 크게 성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음악은 연주용으로 지금까지 인기를 모고 있다. 짧은 메켈레가 스트라빈스키의 파격적인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주목이 되는 음반이다. 이번 녹음은 20세기의 위대한 상징적 작품 ‘봄의 제전’과 ‘불새’를 통해, 이번에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시 한번 그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레온스카야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 4번

일찍이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에게 극찬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가 이번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의 세계를 펼친다. 앞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과 함께 워너에 돌아온 살아있는 전설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는 음악적 순수함과 작품의 구조를 다루며 열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했다. 두간 소리예프가 이끄는 툴루즈 카피톨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함께 2017·2018년 시즌을 보내며 협주곡 3, 4번을 녹음했는데, 당시 평단에서 받은 “짧은 연주자와 같은 에너지와 민첩성,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찬사를 체감할 수 있다. 앞서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몇 곡만 발매한 그녀의 많지 않은 베토벤 녹음으로 기대가 되는 음반이다.



부닌 - 1987년 라디오 프랑스 리사이틀

1983년 롱 티보 콩쿠르 우승, 1985년 10월 20일 역사적인 쇼팽콩쿠르 우승 후, 일본에서 발매된 쇼팽 콩쿠르 실황 라이센스 음반인 1986년 당시 일본에서만 40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부닌 현상이라 일컬은 아이돌화가 진행됐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 현재 도쿄에 거주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으나, 안타까운 집안 사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원수 마비, 당뇨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여려차례 수술과 재활을 통해 9년만에 복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매되는 1987년 1월 15일의 파리 리사이틀은 1985년 쇼팽 콩쿠르 우승을 제외한 1987년 뮌헨 여름 축제 전까지, 순수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구성된 리사이틀 실황들 중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것을 기준으로 최초의 기록이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 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dm1000@hanmail.net